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1. 2025년도 재정전망

■ 세입여건 ■

- (자체수입) 2025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정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약한 산업구조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정체 장기화에 따른 국세 감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여건 악화 등 지역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
- (세외수입) 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노력 필요
- (이전수입)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기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가 감소하여 국세수입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 세출여건 ■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적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 세대별 격차 해소, 잠재 성장률 저하 등 지역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래세대의 부담 최소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재정 수요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효율성 강화 필요성 증대

2. 2025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

민선 8기 핵심가치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 및 군정 성과 창출에 목표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및 합리적 재정운영

■ 건전재정 기초확립 ■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폐지를 통해 성과 위주의 재정운용 기반강화
- 기존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 및 과잉 투자사업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누수 최소화

■ 세입기반 확충노력 ■

-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 유휴·저활용 재산의 활용·매각 적극 추진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처분 절차 이행을 통한 성실납세자 보호와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조례 감면 총량 준수 및 감면의 합리성·타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출 관리하는 등 지방세 지출 관리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